보도시점 2025.10.20.(월) 11:00 < 10. 21.(화) 조간 > 배포 2025. 10. 20.(월)

미국 몬태나주와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몬태나주 경제사절단 방한 계기 면담 개최
- 산업공급망 협력, 에너지 교역 확대, 비자 발급 이슈 해소 등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20(월) 서울에서 그렉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미국 몬태나주 주지사가 이끄는 경제사절단과 만나 한미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지안포르테 주지사 외에 주지사 영부인, 나바호 트랜지셔널 에너지 대표, 몬태나 리뉴어블 회장, 몬태나주 상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몬태나주 소재 기업 및 주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이날 여한구 본부장과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양국이 LNG, 원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교역을 통해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에너지안보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한국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몬태나주(州)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핵심광물, 제조업, 산업공급망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지안포르테 주지사에게 비자 발급 이슈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원활한 비자 발급을 통해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한편, 여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 관련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역할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강지민 (044-203-56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